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 479~490, 2012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3(4) : 479~490, 2012
http://dx.doi.org/10.7856/kjcls.2012.23.4.479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지 선 례†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A Study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Gender

Ji, Seon Ry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elf-concept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grades 3-6). 454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survey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self-concept among the low-income families children were relatively different. For boys, the major influential individual variabl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grade, stress, and the father's affective attitude. For girls, the major influential individual variabl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stress, support from friend, father's affective attitude, and grade. Second,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that affected children's self-concept. This study proposes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self-concept mechanisms.

Key words: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self-concept, gender

I. 서론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는 약 13%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약 130만 명의 아동들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아동기 뿐 만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특히 빈곤은 아동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움으로 아동은 무기력이나 절망감을 경험하고, 낮은 자아개념, 우울, 또래관계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낮은 사회적응력을 나타내고 있다(McLeod & Shanahan 1993; Min 200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을 증가하는데 있어 자아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게하여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

접수일: 2012년 11월 14일 심사일: 2012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3일
†**Corresponding Author**: Ji, Seon Rye Tel: 82-62-530-1323
e-mail: vjvcvj@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향을 미친다(Kim 2008).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며 그것을 기초로 일생동안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를 자아개념이라 한다. 아동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뢰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격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일생동안 인간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점의 총합으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각, 생각 및 태도의 종합적 형태로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스스로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나타내며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우울, 불안, 일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심리행동문제를 나타낸다(Lee & Kim 2009; Lee & Kwon 2006; Park & Cheon 2008). Harter(1985)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을 기술하고 자신의 유능감이나 적절성을 또래 등과 비교하여 판단하면서 점차 정확히 자아를 지각하게 됨으로 아동기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erner와 Smith (quoted in Han 2008)도 아동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성인기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정은 아동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특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은 저소득가정 아동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Lee & Kwon 2006). 이러한 자아개념은 단순히 생득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경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아동의 특성과 부모, 또래 등 환경요인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5). 즉 아동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의 환경 요인과 성별, 학년,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의 아동의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Son et al. 2008),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Lee & Kim 2009) 등 아동 요인, 환경 요인 중 하나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동의 특성, 환경요인을 포함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며 연구대상도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이 대부분이다(Do 2008; Jeong 2010; Kim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요인, 환경요인을 선정하여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환경요인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요인에서 성별, 학년, 스트레스를 개별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핵가족이 확대되고 여성의 자아실현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실제적으로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즉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감, 애착, 성역할, 자아개념 등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특히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민감한 애정적 양육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동에게 분명한 통제를 가하면서도 온정적이며 아동에게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부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며 아동으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성인이나 또래와 협동을 잘하는 등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에게 주는 영향은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의하여 중재되며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소하고 아동의 자아개념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Eo 1998; Jeong 2003). 또한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감소하였다(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Buri와 동료들(quoted in Eo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하여 50%이상의 설명력이 있었고,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또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Jeong(2010)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또래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은 또래관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Han 2008)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서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저소득가정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이나 좌절감을 고려하여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로 아동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의 방식과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의 기초,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능력 등을 배우며, 친구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적 지원 및 갈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적응을 발달시켜 나간다(Furman 1996). 긍정적인 친구지지는 안정된 정서를 갖도록 도와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며, 자아개념의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친구에게 거부되는 경험은 우울증, 고독감이나 비행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여아들은 친구관계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나누면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아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친밀감을 쌓아간다(Bukowiski & Hoza 1989; Han 1996; Kim 2000; Parker & Asher 1993; Perry et al. 1988). 또한 Mendelson & Aboud (quoted in Chong & Chong 2007)는 연구에서 친구지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둘째, 친구는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도와주는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 친밀감으로 친구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욕구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주는 기능을 한다. 넷째, 친구와의 안정된 관계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신뢰감을 준다. 다섯째, 친구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여섯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위로 등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아동에게 학교 환경의 중요성, 특히 아동의 친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친구관계를 신뢰하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Blum et al. 2002; Chong & Chong 2007; Han 1996; Han 2008; Schwartz et al. 2000). 그러나 친구지지가 자아개념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선행연구들도 있다. 저소득층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또래지지가 낮은 아동들이 더 높은 자아개념과 더 높은 적응수준을 나타내었다(Dryfoos 1990; Jeong 2003; Kim 2004). 또한 MacNeil 등(2000)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 시기에 또래로부터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을 얻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친구의 지지를 받는 아동이 친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의 친구지지와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

며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소수의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은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친구역할이 중요함으로,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게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아개념 발달에 저소득가정 아동의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기초자료를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기는 신체, 인지,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성장 및 변화과정을 겪는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학업에 대한 과잉기대와 친구들 간의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더구나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그 자극의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삶의 사건과 일상적 스트레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보다는 부모님의 간섭, 친구가 놀리거나 무시하는 것, 학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들에 의해 낮은 자아개념,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이 더 의미 있게 설명된다고 보고하고 있다(Nam 2009).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불안이나 불만, 걱정, 짜증, 긴장, 고통, 부담감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계속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은 아동의 심리적인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취약한 가정환경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이해하고 자아개념에 마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Jeong과 Lim(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 6학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이 제일 낮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S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았다. Nam(2009)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았다. 그러나 빈곤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교 시기는 동성의 친구와 친하게 놀면서 동성끼리 몰려다니며 사회의 규범에 대해 배우고 이성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남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두드려진다. 또한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로부터 강요를 받고 성별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능력 관련 자아개념을 높이 지각하고 있으며, 여아는 부모관련 자아개념을 높게 지각하였다(Kim 2009; Nam 2009). 또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0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자아개념에는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여학생의 자아개념에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순으로 영향을 끼쳐 남학생은 친구 영향력이 더 컸고 여학생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영향력이 더 컸다. Laible 등(2004), Kim(200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자아개념에 또래영향력이, 여학생의 자아개념에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Jeong (2010)은 남녀 모두 또래보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개념의 특성과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보호요인인 자아개념의 증진방안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개념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한 내

용을 살펴보면, 남아의 자아개념이 여아보다 높다거나(Jeong & Lim 2007), 자아개념에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등(Han 2008; Jeong 2010; Nam 2009)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대상이 주로 청소년이고 아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은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떠한지, 부모변인이나 친구변인, 개인변인이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 신체, 사회성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유아의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시기보다 자아개념이 낮아진다(Jeong & Lim 2007). Jeong과 Lim(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 6학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이 제일 낮았고, Nam(2009)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극소수이므로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을 규명하여, 성장하는 아동에게 자아개념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복기 시기인 아동을 성별로 나누어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 스트레스, 학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구조적 위험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위험요인의 영향을 중재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스트레스, 학년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 광주광역시 소재 34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이며 양친과 함께 생활하는 4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동의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이 끝난 후 수거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한부모 가정 아동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거주지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하였다. 양부모가정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한부모인 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 외에 결손가족이라는 가족구조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der and grade of subject

(N = 454)

		Gender		Total
		Boy	Girl	
Grade	3 grade	71	61	132(29.1)[1)]
	4 grade	41	54	95(20.9)
	5 grade	45	74	119(26.2)
	6 grade	48	60	108(23.8)
Total		205(45.2)	249(54.8)	454(100)

1) %

2. 측정도구

1)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Nam(200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자아개념은 신체능력, 신체외모, 친구관계, 부모관계, 학업, 일반자아 등의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17점에서 68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 아동의 환경 요인

(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1990)의 양육행동 검사도구 중 애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정해주며, 아버지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한 것은 저소득가정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이나 좌절감을 고려하여 자아개념의 보호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점수는 10점부터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보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2) 친구의 지지

친구지지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 정보, 도움,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에 대한 아동의 평가로 정의한다. 아동의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n(1996), Ju(2004)가 사용한 척도들을 기초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내용으로 하였으며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내용은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학용품이나 물건을 마련해주거나 빌려주는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아니오'에서 '예'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다.

3) 아동 개인 요인

(1)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Han(1996), Nam(2009)이 사용한 척도들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부모 및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이며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점수는 11점부터 4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2)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동은 성별과 학년으로 분류하였고, 학년은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위한 자료분석은 SPSS 통계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고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저소득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즉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Difference in children's self-concept by gender

Variables	Gender	M	SD	t
Self-concept	Boy	53.01	8.09	-1.34
	Girl	54.05	8.20	

2.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의 스트레스,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01 - 1.47범위로 1점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W계수도 2.07 - 2.24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1)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개념은 남아($p<.001$), 여아($p<.01$) 모두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5학년과 6학년이 3학년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6학년이 나머지 학년보다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2) 자아개념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분류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저소득가정 남아의 자아개념과의 관

Table 3. Difference in children's self-concept by grade

Boy				Girl			
Grade	M	SD	Duncan	Grade	M	SD	Duncan
3 grade	55.70	7.76	a	3 grade	55.80	6.86	a
4 grade	52.82	6.44	ab	4 grade	55.04	9.56	a
5 grade	52.35	8.08	b	5 grade	54.35	7.96	a
6 grade	49.82	8.49	b	6 grade	50.95	7.32	b
F		5.65***		F		4.35**	

$^{**}p < .01$, $^{***}p <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by gender

		Father's affective attitude	Friend support	Stress	Self-concept
Boy	Father's affective attitude	1			
	Support from friends	-.13	1		
	Stress	-.46***	.18*	1	
	Self-concept	.39***	-.14*	-.45***	1
Girl	Father's affective attitude	1			
	Support from friends	-.17**	1		
	Stress	-.46***	.23***	1	
	Self-concept	.36***	-.33***	-.45***	1

$^{*}p < .05$, $^{**}p < .01$, $^{***}p < .001$

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39, p<.001), 친구지지(r=-.14, p<.05), 스트레스(r=-.45, p<.001)가 아동의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 아버지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아의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남아의 자아개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36, p<.001), 친구지지(r=-.33, p<.001), 스트레스(r=-.45, p<.001)가 여아의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여아의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여아의 자아개념은 낮게 나타났다.

3)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학년,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남아의 스트레스가 남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β=-.27, p<.001), 스트레스(β=-.25, p<.00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β=.22 p<.01)순으로 남아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F=18.59, p<.001), 이 때 설명력은 28%이다. 즉 학년이 낮고,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저소득가정 남아의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by gender

	Self-concept			
	Boy		Girl	
Independent variables	B	β	B	β
Father's affective attitude	.36	.22**	.29	.17**
Support from friends	-.49	-.11	-1.15	-.25***
Stress	-.29	-.25***	-.34	-.29***
Grade	-1.81	-.27***	-1.27	-.16**
F	18.59***		26.45***	
R^2	.28		.32	

*p < .05, **p < .01, ***p < .001

또한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β=-.29, p<.001), 친구지지(β=-.25, p<.001), 아버지 양육태도(β=.17, p<.01), 학년(β=-.16,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F=26.45, p<.001), 이 때 설명력은 32%가 되었다. 즉 여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적고,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학년이 낮을 때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의 친구지지, 아동의 스트레스, 학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및 평가, 가치감 등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은 성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Han (2008), Jeong(2010), Nam(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학년에 따라 자아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년은 자아개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낮아졌는데 특히 6학년의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달상의 변화에

적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업준비로 인한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그런데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발달지위상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또래등과 비교하여 판단하면서 자아개념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아동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발달단계에 적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는 학년, 스트레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친구지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학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녀의 자아개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가정 아동이 부모 및 가족관계, 경제적 곤란,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개념과 부적응을 초래하고(Mahon et al. 2003; Nam 2009),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낮은 자아개념을 나타낸다(Compass et al. 1988; Han 1996; Nam 2009). 그런데 높은 자아개념은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으로 적응유연성을 높게 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므로 자아개념을 낮추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아동에게 제공해야한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며, 또래나 사회관계에서 아동의 유능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아동의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곤란의 영향을 중재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버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하고 유능한 자녀발달을 위해, 지역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버지에게 아동발달, 아동양육 방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졌으며 특히 학년이 남아들에 대한 영향력이 큼으로 남아들을 배려한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친구지지는 남녀 모두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친구지지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친구지지가 사회심리적 특성에 보호요인(Han 1996; Wentzel & McNamara 1999)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친구지지는 남아의 자아개념에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아의 자아개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다. 친구지지가 아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우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n 1996; Schwartz et al. 2000)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저소득층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의 적응수준을 낮추고 또래지지가 높은 아동들이 더 낮은 적응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Dryfoos 1990; Jeong 2003; Kim 2004; MacNeil et al. 2000)와는 일치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할 때,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성향이 있는 또래로부터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을 얻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 같다. 특히 여아의 경우 동성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나타났다(Dryfoos 1990; Kim 2004; MacNeil et al. 2000). 그러므로 가정의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여아들이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학교의 상담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나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저소득가정 여아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어디를 다니는지, 친구집단 특성은 어떠한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친구지지는 남아의 자아개념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남아들이 또래집단의 소속여부를 중히 여기고 부모보다는 또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Kim 2009; Laible et al. 2004)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또래요인보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eong 2010)와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에 집중하여 친구관계를 멀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함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아의 자아개념에는 학년,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사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나 여아의 자아개념에는 스트레스와 친구지지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획일적인 중재와 서비스보다는 성별에 따라 위험요인을 중재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북, 광주광역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 하기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친구지지가 자아개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본 논문에서는 친구지지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만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진다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빈곤율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아동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함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위험요인을 중재하고 보다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Blum RW, McNeedy CA, Rinehart PM(2002) Improving the odds: The untapped power of school to improve the health of teens. Minneapoils, MN: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Bukowiski WM,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n Bernt TJ, Ladd GW (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Chong YJ, Chong YS(2007)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orean J Develop Psychol 20(1), 67-88.

Chung IJ(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 Primary Preve 24, 355-380.

Compass BE, Madarne RL, Fondacare K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r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 J Consulting & Clinical Psychol 56(3), 405-411.

Do KH(2008) A study of father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Living Sci Assoc 17(5), 861-872.

Dryfoos J(1990) Adolescent at risk. New York: Oxford Press.

Eo JK(1998) Influencing variables via path analysis on children's self-esteem of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Flouri E, Buchanan A(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 Educ Psychol 74, 141-153.

Furman W(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Bukowski AF, Hartup WW.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41-65).: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 JA(2008)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Han MH(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Press.
Jeong AS(2003)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of urban children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Jeong MS(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Adolescent Culture 25, 140-170
Jeong OH, Lim KW(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and stress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Korean J Clinical Soc Work 4(3), 149-170.
Ju SH(2004) Study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s adaptation after divorce: In child's point of vi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 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Kim EK, Yoo GH(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thers' attitudes of child rearing. Korean J Play Therapy 5(1), 33-43.
Kim HS(2004) Effects of environmental systems on childhood delinquency in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im JY(2008)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factors on adolesc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MI, Jang YA(2007)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8(3), 379-390.
Kim SH(2000) An exploration on causa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by types of behaviors problem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Kim SH(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arent and pe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Laible Dj, Carlo G, Roesch SC(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 Adolescence 27(6), 703-716.
Lee EJ(2000) Interactional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 Youth Stud 7(1), 149-168.
Lee H(2007) The research about the main factors has effect on sociality and self-esteem of the low-income group children: The center of hong-sung count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ung University, Hongsung, Korea.
Lee JH, Kim JO(2009)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on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children'self-concepts. J Family Relations 14(3), 61-89.
Lee WH, Kwon YS(2006) A study on children's self-concept. J Child Educ 15(1), 167-278.
MacNeil G, Stewart JC, Kaufman AV(2000) Social support as a potential moderator of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Child & Adolescent Soc Work J 17(5), 361-379.
Mahon NE, Yarcheski A, Yarcheski TJ(2003)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 Pediatric Nurs 18 (4), 267-273.
McLeod JD, Michael JS(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 Sociological Rev 58, 351-366.
Min KH(2000)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he common poverty distric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9)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children and adul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Nam YH(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children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ark SY, Lee S(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8(1), 141-156.
Park WM, Cheon SM(2008) A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 School Psychol 5(1), 41-59.
Parker JG, Asher SR(1993) Friendship an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Develop Psychol 29, 611-621.
Perry D, Kusel S, Perry L(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 Psychol 24, 807- 814.
Schwartz D, Dodge KA, Pettit GS, Bates JE(2000) Friendship as a model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 Psychol 36, 646-662.
Shin JH(200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about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on KM, Cha YA, Nam SI(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self-concept of th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gender. Soonchunhyang J Humanities 21, 131-154.

Sun YM, Li YZ(2004) Children's well-being during parent's marital disruption process: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J Marriage & Family 64(2), 472-488.

Wentzel KR, McNamara CC(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J Early Adolescence 17(2), 129-151.